

#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펴

글·사진 | 신원철 기자



작가 서인순과 남편 그로브홀츠 씨

“여러분, 난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1964년 12월 10일 독일 루르 지방 함보른 탄광의 한 회당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500여 명의 한국인 광부와 한복차림의 한국인 간호사들은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한 마디도 따라하지 못했다.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설은 끝내 이어지지 못하고 장내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한강의 기적 이면에는 월남전 파병과 함께 외화획득을 위해 국가시책으로 배출된 취업이민이 있었다. 당시 광부와 간호사들은 독일로 보내졌고,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들 개인은 반 강제적으로 타향으로 던져진 셈이었다.

독일에서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인순 씨 역시 6~70년대 간호사 신분으로 독일로 건너간 사람 중 하나다. 같은 케이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 가난한 집에서 자라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 떠난 길. 하지만 독일에서 간호사로 지내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낯선 문화와 생활환경은 단순히 업무에 적응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더군다나 의료서비스는 환자와의 소통이 꼭 필요한 업종. 고된 간호사 업무를 마치고 나면 그곳에 마련된 어학프로그램에서 독일어를 익혀야 했다. 서인순 씨가 학업을 포기하고 건너간 독일 사회는 지금도 그리고 당시에도 동양인에게 그리 친절할 곳은 아니었다. 그곳에서 30여 년을 보내고, 그녀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정착해야만 했다.

마지못해 그만두어야 했던 학업은 시간이 가도 허탈감이 가시지 않았다. 1970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7월 독일로 향한 뒤로 꼭 20년이 찬 1989년, 서인순 씨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거의 잠을 자지 않으며 작업에만 몰두했



1. <Pine in the wind> 캔버스 위에 아크릴 120×200cm 2002  
 2. <To return home> 캔버스 위에 아크릴 130×90cm 2002

는데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  
 원일과 그림을 병행해야 했던 그녀는 심한 알레르기에 시달렸는데,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한계에 이를 만큼 자신을 몰아댄 때문이  
 었다. 고향을 떠나야 했던 상실감과 낯선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와 갈등을 그녀는 작업으로 매웠다. 결국 알레르기  
 때문에 1995년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됐지만, 병원 측의 배려로 1996  
 년 뉘르팅겐 미술치료 전문대학에 입학한다. 현재 슈투트가르트 시  
 를 통해 마련한 작업실에서 미술치료와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은  
 그 덕분이다.

늦깎이로 시작한 공부의 열기는 나이가 들면서 더해갔다. 요하네  
 스 구텐베르크 종합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이어 바델의 헤르베  
 르트 케텔훤,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에 더해 이제 10학기를 맞고  
 있는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을 다니는 것만 봐도 쉽사리 알 수  
 있다. 현재 그녀 작업의 중심은 회화와 드로잉 그리고 판화에까지  
 이른다.

그중 평면회화작업은 특히나 선명하고 맑은데, 그것은 작업이 서  
 인순 씨에게 어떤 파괴된 상실을 발산하는 것이기보다는 건강한 재  
 생, 현실의 구심점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것임을 직감하  
 게 한다. 화면에는 한색과 난색이 혼합되어 섞여 있음에도 사용되는  
 색채는 모두가 따뜻하다. 그 맑음은 너무도 건강하고 그래서 보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힘마저 느껴진다. 바로 그녀의 작업이 지  
 니는 의미, 그녀가 독일에서 보낸 30년을 반영한다. 

